

「그린삼성」 독자여러분께 드리는 2019년 새해인사



윤석정 전무 _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그린삼성」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2018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는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수입규제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액이 6천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신기록을 세운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흥국 불안요인 증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세계적인 저성장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국내의 경우에도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등 각종 경제지표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장기적인 침체에 대비한 투자 위축을 우려하여 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화두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분야도 정부와 기업 관심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해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의 안타까운 사고가 촉매제가 되어 원청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 적용대상 및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해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연일 거론되면서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제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각종 저감조치가 발표되고,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분야를 포함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정부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할 주체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효율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곧 기업의 지지력과 생명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올해도 기업의 안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 설 것이며, 「그린삼성」을 통해 독자 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월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윤석정